

중기부, 민생경제 회복·혁신·선제대응 등 '3대 목표' 제시

4개 부처 합동 '주요현안 해법 회의' 3대 경영 충격 완화에 우선 대응 소상공인 금융 3중세트 지원 강화 및 "소상공인·중소 버팀목 될 것"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기업 등을 추가 육성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중기부는 8일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한 2025년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민생경제 활력 회복,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대응 등을 골자로 한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중기부는 '금융 충격', '환율 충격', '투자 회복'을 중심으로 당면한 '3대 경영 충격 완화'에 우선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조2000억원 규모의 전환보증 공급 ▲상환연장 인정요건 완화 ▲대환대출의 거치기간 부여 등 소상공인 금융 3중세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3중세트와 관련해 성실 상환자에게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는 추가대출 등을 해주는 '소망(소상공인 희망) 충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전국에 30개의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고 회생법원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현재 약 12개월 가량 걸리는 파산·회생 소요기간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마련, 경영위기 소

상공인의 재기 지원도 도울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지난 2021년 말 909조원에서 지난해 9월 말 현재 1064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연체율은 같은 기간 0.52%에서 1.7%로 급등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계엄령, 탄핵 등 국내 정치 불안으로 환율이 한 때 달러당 1500원대에 근접하는 등 요동치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부는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입·수출 피해업을 대상으로 최대 1조5000억원의 정책자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무역보험과 보증 가입비도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1분기에 신속 시행한다. 1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내수 활성화도 적극 돕는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5조5000억원 어치를 발행한다. 또 대규모 소비촉진 '동행축제'는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각각 연다. 1월 말 설명절을 맞아 카드형·모바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15% 특별할인한다.

매출 유발 효과가 큰 공한 내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을 3곳에서 6곳으로 늘리고, 입점 기업도 900개사에서 1800개사까지 확대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업해 과점 배달플랫폼 회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전수조사·개선할 계획"이라며 "동반성장 시범평가를 배달플랫폼까지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동반성장지수에 편입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구조, 불공정 행위 등 플랫폼 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혁신과 스케일업을 위해 신산업 분야를 주도할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 AI 펌리스, 헬스케어 등 5대 성장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 특성에 따른 상용화와 제품 검증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대기업 수요에 기반한 매칭·협력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AX와 DX를 통한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 역시 가속화한다.

1700여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로봇 도입, 제조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디지털트윈 적용 자율형 공장 등 공정의 자동화·지능화·자율화를 통해 현장 맞춤형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대내외 변동성에 견고한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고정비가 낮고 부가가치가 높은 테크서비스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수출바우처를 신설한다. 해외 기술 수요기업과의 매칭·거래를 지원하는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도 본격 운영한다.

K-뷰티를 포함한 푸드·콘텐츠 등 한류 전략 품목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K-뷰티 글로벌 펀드'를 조성한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불안정한 대외 환경은 특히 중기부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상공인 절반 "올해 경영환경 '악화' 될 것"

중기중앙회 '경영실태·정책과제 조사' 원자재비·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 원인

소상공인 절반 가량은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큰 사업 부담 요인으로는 고물가, 매출 감소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6일까지 생활밀접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중심으로 한 '3고 위기'와 대출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경영실태를 파악

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55.6%가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슷할 것'이란 답변은 39.4%였다. 반면 '개선' 전망은 5%에 그쳤다.

올해 가장 큰 사업 부담 요인(복수 응답)을 묻는 질문에는 '원자재비·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가 52.8%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43.1%), '대출 상환 부담'(36.4%), '인건비 상승·인력확보 어려움'(35.5%)도 비교적 많았다.

이런 가운데 응답 소상공인의 93.5%는 폐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취업 어려움과 노후 대비 등 생계형 창업이 전체의 78.5%를 차지하

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기관 대출은 소상공인의 73.8%가 사업 목적으로 대출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34.9%는 전년 대비 대출액이 늘었다고 답했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금융지원(80.8%) ▲판로지원(9.9%)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2.4%) ▲상생협력 문화 확산(1.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국회사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복수 응답)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 완화(63.4%) ▲인건비 상승·인력 부족 해결(63.0%) ▲소상공인 소득공제 혜택 확대(29.6%)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28.3%) 순으로 조사됐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복지에 60억 투입

자녀학자금 등 7대 복지 지원

CJ대한통운이 지난해 2만2000여명의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자녀학자금, 출산지원금, 입학축하금, 추가 건강검진, 경조사 등 7대 복지 지원을 위해 60억원을 투입했다.

8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2012년 시작한 복지혜택은 해마다 늘어 2023년에는 66억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누적 금액은 550억원에 달한다.

택배기사는 대리점과 계약하는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회사가 복지혜택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 종사자 상생과 대국민



/CJ대한통운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2년 학자금 지원제도를 전격 도입했으며 이후 복지 항목을 지속 확대해 왔다.

수혜자 역시 복지제도 도입 첫해 1300명에서 지난해 2만20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12월 동행축제, 6128억 매출 기록"

지난해 세차례 열려... 총 4.5조 실적

12월 동행축제 기간 약 6000억원의 직접 매출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 차례 열린 동행 축제에서 총 4조5000억원(직·간접매출 기준) 가량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열린

동행축제에서 6128억원의 직접 매출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네이버 쇼핑, 11번가를 비롯한 온라인 채널 특별 기획전, TV 홈쇼핑 등을 통한 온라인 매출 5359억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특판전, 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출이 76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174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은 217억원을 판매해 매출에 간접적으로도 도움을 줬다.

12월 동행축제는 2024년 동행축제 여정을 마무리하는 행사로, 5월과 9월 동행 축제에 참여했던 100개의 동행기업들을 중심으로 전용 기획전, 라이브커머스를 비롯한 다양한 판촉을 지원했다.

2024년 총 세 차례 진행한 동행축제는 5월(지역), 9월(글로벌), 12월(나눔) 등 화차별로 다양한 콘셉트로 릴레이 소비촉진 캠페인을 이어갔다.

/김승호 기자

기업 간 신규 비즈니스 기회 제공

이노비즈협회가 기술혁신형 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등을 대상으로 '23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8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최고경영자과정은 지난 2008년 시작한 이후 17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혁신형 기업 경영자를 위한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 현재 900여개의 동문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하는 교

육과정과 함께 독서, 합창, 문화예술, 등산, 자전거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 동문 기업 간 협업과 융합의 학습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총 15주간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매주 화요일마다 지혜와 식견을 넓히고 열정속에서 전문지식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지닌 '이노비즈 화식열전(火識熱專) - 인문학적 통찰의 시간, 경영의 인사이트를 찾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김승호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 베트남 2024년 외국인 관광객 1760만 명...한국인 25%로 1위
▲ 티베트 강진에 日이시바, 中시진핑·리창에 애도 메시지 /사진 뉴스시스

▲ 美 '중국군 지원기업' 추가 지정에...中 "모든 필요한 대응"
▲ 파나마 대통령, 트럼프 '윤하 무력 환수' 여지에 "무대응할 것"

▲ 트럼프, 대규모 '외자 유치' 성공... "美 전역에 데이터센터 건립"
▲ 저커버그 "페이스북 등에서 팩트체크 없앨 것"